

□ 회의 개요

- 일시 : '24. 09. 25(수) 14:00~15:33
- 장소 : 서울역 1센터 통일 회의실*(영상회의 병행)
 - *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8층 (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)
- 참석자 : 에너지·산업분과위원 및 他 분과위원,
산업부, 탄녹위 사무처 등 23명
- 안건 :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(안) 검토(토의) ※ 관계부처(산업부) 질의·답변

□ 주요 논의내용

- 제11차 전기본(안)에 대해 2035 NDC와의 정합성 필요,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, 수요관리 강화, 전력망 확충 강화 등의 의견 제시

< 주요 검토의견 >

- ▶ 향후 확정될 2035 NDC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고려하여,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정하거나, 또는 차기 계획에 반영 필요
 - ☞ 2035 NDC에 제시된 감축목표를 차기 전기본에 적극 반영할 계획
 - *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 제25조에 근거하여 2년 주기로 수립
- ▶ 안정적 전력망 구축을 위한 통합적 관리계획 제시 필요
 - * 전력망 관련 거버넌스 재정립을 통한 전력계통 불안정성에 적기 대응
 - ** 신규데이터 센터의 지역분산 유도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책 마련 제시
 - ☞ 전력망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, 별도의 위원회 신설 등 거버넌스 검토 예정

▶ 제11차 전력기본계획(안)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1.6%로 제10차 계획과 동일

- ☞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제10차 계획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나, 동일 기간동안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최종 발전 비중은 유사한 수준

▶ 수정NDC 상 추가감축(400만ton) 달성 여부 및 주요 감축 수단 제시 필요

- ☞ 10차 대비 재생e 보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력수요 증가로 '30년 신재생 발전 비중이 유사 수준이나, 전환부문 '30년 NDC(4백만톤 추가감축)는 달성 가능 전망

▶ 수요관리 부문별 목표의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 제시 필요

- ☞ 수요관리 강화 취지에 동의하며, 금번 제11차 계획에는 기관별 수요관리 추진계획을 적시하고 있음

▶ 해외 전원정책 동향 관련 균형있는 정보제공 필요

- ☞ 에너지원별 균형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 예정